



2026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DAEWON NEW YEAR'S CONCERT 2026

PASSION FOR MUSIC
PATRONAGE FOR MUSICIANS

GREETING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이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올해도 대원문화재단 신년 음악회가 돌아왔습니다. 클래식 음악에게 한결 같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메세나 기업인들과 음악 애호가들을 모시고 함께 하는 아름다운 음악 선물이, 새해의 도전을 헤쳐나갈 원기를 충전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젊고 유망한 음악가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지지해 온 대원문화재단은 올해 무대의 주인공으로 젊은 연주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예술적 가치와 미래를 향한 꿈을 오늘 음악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협연자인 김서현은 만 열 일곱 살의 소녀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스위스의 유서 깊은 콩쿠르인 티보르 버르거 국제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무대에 데뷔한 인재입니다. 우아함과 서정성, 극적인 표현력까지 고루 갖춘 차세대 선두주자이자 장차 세계 음악계를 이끌어갈 젊은이로 주목받습니다. 김서현은 거장 기돈 크레머, 미클로스 페레니, 올리아 피셔 등 세계 최고의 대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KBS 교향악단을 이끌 지휘자 윤한결은 세계 지휘계의 떠오르는 별로 인정받고 있는 젊은 거장입니다. 뮌헨에서 지휘와 작곡, 피아노를 공부한 그는, 2023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을 받고, 이듬해 잘츠부르크에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작곡가로서도 인정받는 윤한결은 잘츠부르크를 비롯, 세계 주요 공연장에서 자작곡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년음악회의 부제는 '차이콥스키의 밤'입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는 풍성한 선율과 거대한 스케일, 그리고 역대 바이올린의 기교가 모두 등장하는 최고의 난곡이자 명곡입니다. 교향곡 4번 f단조는 오랫동안 따스한 시선을 갖고 천재 음악가 차이콥스키를 후원했던 폰 메크 부인과의 소중한 관계를 상징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운명을 지배하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를 떨치고 이겨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화려한 관현악법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음악은 보이지 않기에, 그리고 들리는 순간 사라져 버리기에 오늘 이 시간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위대한 예술의 완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노력하는 음악인들을 늘 응원해주시는 메세나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 음악회가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원문화재단 이사장 김 일 곤



PROGRAM

P. TCHAIKOVSKY 1840-1893

차이콥스키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 35'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35

- I. Allegro moderato 보통 빠르기로
- II. Canzonetta: Andante 칸초네타(작은 노래): 느리게
- III. Allegro vivacissimo 매우 빠르고 활기차게

Intermission

🕒 15'

Symphony No.4 in f minor, Op.36

🕒 45'

교향곡 제4번 f단조, Op.36

- I. Andante sostenuto - Moderato con anima 아주 느리게 - 보통 빠르기로 생기있게
- II. Andantino in modo di canzona 조금 느리게 노래하듯이
- III. Scherzo: Pizzicato ostinato - Allegro 스케르초: 빠르게
- IV. Finale: Allegro con fuoco 피날레: 빠르고 격렬하게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아티스트의 요청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지휘 **윤한결**
Hankyeol Yoon

바이올린 **김서현**
Sarang Seohyun Kim

2026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 차이콥스키의 밤 —

프로그래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35
P.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4번 f단조, Op.36
P.Tchaikovsky | Symphony No.4 in f minor, Op.36

연주 **KBS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2026년 1월 29일(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주관 **대원문화재단**
DAEWON Cultural Foundation

대원문화재단의 선택 지휘자 윤한결

음악의 몰입을 이끄는 설득력 있는 리더십

지휘를 하는 음악가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현역 지휘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흥미롭게도 제일 공통된 답변은 '지휘자는 매우 위험한 자리'라는 것이었다. 너무 예민하고 조심스러워 위험하다는 표현마저 어울리는 것이 무대 가운데에 서야 하는 지휘자의 일이다. 자신의 소리로 연주에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몸짓과 표정만으로 타인의 음악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위험한 임무는 결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오직 시간과 경험으로 굳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은 윤한결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알게 된 후 대폭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와의 첫 만남은 2022년 4월이었다. 스물여덟의 젊은이는 강력한 비팅과 큰 스케일로 스트라빈스키의 발레곡 '페트루 슈카'를 인상 깊게 빚어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자신도 주체 못할 정도의 거대한 세계관을 품은 지휘자가 그 후 이토록 빠르고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은 10대의 천재 기악 연주자들이 세계적 스타가 되는 것만큼이나 드물고 귀한 사건이다. 2023년 카리안 젊은 지휘자상을 받고, 그 다음 해에는 이 위대한 지휘자의 고향과 같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자신의 작품까지 당차게 지휘해 낸 그의 행보는 클래식 팬들이 따라가기 숨기쁠 정도로 속도를 붙여나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환영이나 상상만으로 가능한 이미지를 음

악으로 현실화시키는 능력은 지휘자 윤한결이 지니고 있는 최대의 강점이다. 구상이나 의욕만으로는 수십 명의 단원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바, 그는 생동감 있는 아이디어들과 재치있는 포인트들을 명확한 빌드업으로 연주자 개개인의 눈앞에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데 뛰어나다. 2024년 3월 국립 심포니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스트라빈스키 '불새'에서, 윤한결의 지휘봉은 일필휘지로 발레 속 캐릭터들을 음악회장 빈 공간 위에 그리는 놀라운 광경을 연출했다. 지휘자의 모션이 얼마나 많은 뜻을 내포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 준 무대는 2025년 9월 서울시향과 만들어 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연주였다. 전반적으로 역동적인 드라마를 염두에 둔 음악적 구조 속에, 숨겨 놓은 서정적 모멘트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열쇠를 열 듯 매력을 증가시키는 그만의 '작전'은 힘찬 움직임 속 고도의 디테일을 살린 테크닉을 통해 빛났다.

이제 대륙의 포효와 구슬픈 노랫가락이 어우러진 차이콥스키의 세계를 윤한결의 지휘봉을 통해 만난다. 지금까지 이어 온 개성과 스타일로 짐작해 볼 때 이 젊은 지휘자의 영혼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와 얼마나 가깝게 맞닿아 있을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소리없이 움직이지만 자신만의 설득력 있는 리더십으로 오케스트라를 넘어 이제는 청중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을 그의 무대가 기다려진다.

글 | 김주영(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대원문화재단의 선택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

K클래식의 발견, 수퍼 루키 바이올리니스트

17세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은 요즘 K클래식의 가장 큰 발견이다. 2025년 초부터 헝가리-에스토니아에서 비에니아프스키 협주곡을 시작으로, 스위스에서 바흐-모차르트 협연, 취리히 톤할레에서 울리아 피셔와의 실내악,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저명 음악가들과의 협연 등 유럽 전역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10대 연주자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행보다.

어린 시절부터 국내 주요 콩쿠르를 휩쓸었다. 이자이-레오니드 코간-티보르 바르가 등 국제 콩쿠르에서도 연달아 1위를 차지했다. 14세 때 참가한 토머스 앤 이본 쿠퍼, 티보르 바르가 콩쿠르에서도 가장 어린 연령임에도 우승을 거두며 재능을 입증했다. 압판 초베넬 음악감독의 선택을 받아 2025 서울시향 신년음악회 협연자로 무대에 섰고, 시벨리우스 협주곡에서 탁월한 프레이징과 입체적 해석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08년생 김서현은 5세 때 바이올린을 잡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사한 스승 이선이는 그녀의 감정 표현과 잠재력 확장을 결정적으로 이끌었다. 콩쿠르를 준비할 때면 하루 종일 새벽까지 연습했다. 지금은 효율적 연습과 휴식을 병행하며 독서로 마음을 비우고 채우는 시간을 갖는다. 최근 읽은 책은 넬라 라슨의 『패싱』이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사는 용기"를 되새겼다고 말한다.

티보르 바르가가 사용했던 1753년산 G.B. 과다니니를 기한 없이 대여 받아 쓰고 있다. 고음의 청량함과 폭넓은 텍스처에서 큰 영감을 받는다. 브람스 협주곡으로 바르가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브람스 소나타 전곡, 이자이 무반주 소나타 전곡 리사이틀 등 레퍼토리를 빠르게 확장했다. 요즘은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 등 20세기 작품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2025년 10월부터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시작하며 세계적 연주자들과 실내악 경험을 쌓고 있다. 내년에는 WDR 심포니 투어에서 다니엘 뮐러 쇼트와 브람스 2중협주곡을 협연하고, 이후 국내 공연과 취리히 톤할레에서의 모차르트 협연 등 바쁜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해외 활동시 원활한 발음을 위해 그녀의 이름을 영어로 'Sarang Seohyun Kim'으로 표현한다. 설명이 필요없는 이름을 잘 골랐다. "연주자가 아닌 음악이 주인공이 되는 연주"를 목표로 하는 김서현은 오늘도 연주의 질적 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수퍼 루키다.

글 | 류태형(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35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후기 낭만 시대를 대표하는 브람스, 차이콥스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들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발표 당시 너무 난해해 연주가 불가능하다는 평을 들었다는 사실이다. 그중 차이콥스키의 작품은 기교가 지나치게 어렵고 전통적인 연주 양식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1878년 작곡가가 초연을 부탁했던 당대 최고의 연주자 레오폴드 아우어가 다름 아닌 흑평의 근원지였다.

이보다 4년 앞서 만들어진 피아노 협주곡 1번의 창작 과정에

서 발생한 절친 니콜라이 루빈스타인과의 갈등을 떠올려보면 묘한 기시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작품을 향한 논란들은 차이콥스키가 품었던 혁신적인 협주곡들에 대한 의욕으로도 풀이할 수 있겠다. 결국 Op.35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는 1881년 12월 아돌프 브로드스키에 의해 초연되었다. 한스 리히터와의 협연으로 이루어진 빈에서의 첫 음악회 반응은 그다지 뜨겁지 않았으나, 연주 후 작품의 진가를 알게 된 브로드스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협주곡을 무대에 올리며 인기를 얻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피아노 협주곡 1번에서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이 그랬던 것처럼 레오폴드 아우어 역시 곡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바꾸고 적극 연주에 동참했다. 그야말로 극한의 기교가 들어간 난곡을 정복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는 노력을 기울인 수많은 바이올리니스트의 노력이 그 후에도 이어졌고, 차이콥스키의 이 걸작은 이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협주곡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알레그로 모데라토의 서주로 시작되는 1악장은 템포와 분위기, 스케일의 변화가 설 새 없이 나타나는 대규모의 악장이다. 두 개의 주제는 모두 바이올린이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우아하고 두 번째는 좀 더 멜랑콜리한 느낌이 강조된다. 발전부 역시 독주 바이올린이 이어가며, 당대에 찾아보지 못했던 이중음과 도약 등 기교적 요소와 오케스트라와의 긴밀한 호흡이 요구되는 섬세한 뉘앙스가 등장한다. 간간히 등장하는 오케스트라의 간주는 작곡가 특유의 휘황찬란한 음색을 뽐

내며, 거대한 카덴차는 재현부 직전에 배치돼 악장 전체의 하이라이트를 맡는다.

2악장은 3부 형식으로 칸초네타라는 지시어를 갖고 있다. 차이콥스키만이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슬픔'을 절절하게 그려낸다. 목관악기들의 짧은 인트로에 이어 바이올린이 처연하면서도 매력적인 악상의 테마를 노래하며, 독주악기의 활약 중에도 오케스트라와의 짝맞춤 대화들은 이어진다. Eb 장조로 변화하는 중간부에서 분위기는 잠시 밝아지지만 이내 사무룩하고 우울한 모티프들이 등장해 다시 처음의 기분으로 이끈다.

러시아 춤곡 트레팍 리듬의 강렬함을 기반으로 하는 3악장은 알레그로 비바치시모로 숨가쁘게 달려나가는 멋진 피날레다. 매력있는 오케스트라의 전주가 끝나고 등장하는 바이올린의 첫 주제는 박진감있게 차고 나가는 듯한 에너지가 포인트다. 두 번째 주제는 다소 누그러진 템포로 시작하지만 금세 속도를 붙여 흥을 돋우는 러시아 춤곡의 모양새를 보인다. 목관악기로 제시되는 부주제의 모습은 차이콥스키만이 빛낼 수 있는 쓸쓸함의 정서로, 바이올린은 이를 살짝 스쳐 지나가듯 반복해 오히려 짙은 뒷맛을 남긴다. 마지막을 향해 치달으며 점차 고조되는 클라이맥스는 눈부신 바이올린의 활약과 오케스트라의 응원이 어우러져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함의 극치를 선보이며 끝을 맺는다.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4번 f단조, Op.36
Symphony No.4 in f minor, Op.36

*저는 이 작품을 당신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 안에
당신에 가장 친밀한 생각과 느낌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은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중 가장 변화무쌍하고 정열적인 교향곡 4번을 구상하고 있던 1877년 5월, 작곡가가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스스로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의 산물'이라고 부른 이 교향곡은 초연 당시부터 성공이었으나, 완성되기까지 많은 위기를 겪어야 했다. 작품이 조금씩 틀을 잡아가던 무렵 제지였던 밀류코바와의 결혼과 파경은 그의 창작욕에 큰 상처를 입혔다. 작업은 중단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도피와 자살 소동이 이어졌는데 동생과 함께 스위스로 요양을 떠난 이후 가까스로 작곡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 후 폰 메크 부인의 배려로 기운을 차린 차이콥스키가 교향곡 전체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완성한 것은 1878년 1월 이탈리아 북부 산 레모에서였다. 초연은 같은 해 2월 모스크바에서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의 지휘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피렌체에 머물고 있던 차이콥스키는 성공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다음은 전곡의 핵심인 1악장에 대해 폰 메크 부인에게 작곡가가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 교향곡은 표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주는 교향곡 전체의 핵심, 중심 악상으로서 '운명'입니다. 즉, 행복에의 추구가 목적을 관통하는 것을 방해하고, 평화와 위안이 전혀 잘 되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는 항상 구름이 있다는 것을 질투 가득하게 주장하고 있는 운명적인 힘입니다. (중략) 우리들의 생활은 괴로운 현실과 행복한 꿈과의 교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도피처는 없습니다.

소나타 형식의 1악장은 예의 '운명의 주제'가 호른과 바순의 연주로 강하게 등장하며 시작된다. 신음하는 느낌의 1주제와 멜랑콜리의 느낌이 강한 2주제 모두 아름답지만 어딘가 쓸쓸한 정서를 자아낸다. 현악기의 풍성한 울림과 적극적인 움직임이 작품에 에너지를 더하며, 재현부와 코다는 1주제를 중심으로 과도한 정열로 몰아친다.

오보에가 슬픈 주선율을 연주하며 시작하는 2악장은 장조와 단조가 주제상으로 나타나 주고받는 진행이 인상적이다. 중간부의 악상은 다소 흥분된 기분의 F장조로 나타난다. 작곡가는 '일상에 지친 사람이 밤늦게 홀로 앉아 있을 때 느끼는 우울한 감정'이라고 설명했다.

3악장은 스케르초로 모든 현악기가 피치카토로만 연주한다. 모두 다섯 부분인데, 목관악기와 금관악기가 나서는 부분은 각각 A장조와 D^b 장조로 서로 다른 분위기이다. 3악장에 대

해 작곡가는 '술 취했을 때 우리 머리를 스치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상'이라고 했다.

피날레는 알레그로 콘 푸오코의 거침없는 악상이다. 등장하는 주제 세 개 모두가 러시아 민요의 특질을 지니며, 특히 두 번째 주제는 유명한 '들에 선 자작나무'의 멜로디를 사용했다. 교대로 등장하는 세 개의 주제는 물과 불처럼 대조적이며 동시에 앞서거나 뒤서거니를 반복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1악장의 운명의 주제가 앞을 막아서지만, 흥겨움에 곧 묻혀버리는 듯하다. 4악장을 '민중 축제날의 묘사'라고 설명한 작곡가의 이야기는 충고에 가깝다. '행복은 단순하고, 소박한 행복은 아직 존재한다. 사람들의 행복을 즐겨라!'

글 | 김주영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사이버대 교수)

CONDUCTOR
HANKYEOL YOON



지휘 | 윤한결

지휘자이자 작곡가, 피아니스트인 윤한결은 1994년 대구 출생으로 예원학교(작곡 전공) 졸업 후 독일로 유학, 뮌헨 국립음악 대학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사벨 문드리 교수에게 작곡을 공부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유카 이마민 교수에게 피아노를 배웠으며, 2014년부터는 마르쿠스 보쉬, 게오르그 프릿치, 알렉산더 리브라이히 교수의 지도 아래 오케스트라 지휘를 공부하고 있다.

지휘자로서 그의 커리어는 2015년과 2017년, 하이덴하임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음악 어시스턴트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7/18 시즌 뉘른베르크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는 마르쿠스 보쉬 교수의 부지휘자로 경력을 쌓은 후, 2018/19 시즌 제네바 대극장의 오프닝 프로덕션에서 게오르그 프릿치 교수의 부지휘자로 활동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이후 독일음악협회 지휘자 포럼의 장학생으로 발탁되어, 2019/20 시즌부터 노이슈트렐리츠-노이브란덴부르크의 메클렌부르크 주립극장의 제2 카펠마이스터로 활동하게 된다. 이때부터 지휘 경력이 늘어나는데, 뮌헨 심포니, 뉘른베르크 심포니, 뉘른베르크 슈타츠티카모니,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 잉골슈타트의 그루지아 체임버 오케스트라, 바트라이헨할 필하모니, 그라이츠의 포크트란트 필하모니, 데사우 국립 오케스트라, 그슈타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부다페스트의 오부다 다누비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된다.

2019년 젊은 유망주 대상 독일의 지휘 콩쿠르인 2018/19 캠퍼스 지휘 경연대회에서 3위를 수상했는데, 그 해 8월에는 250여 명이 참가한 그슈타트 메뉴힌 페스티벌 & 아카데미에서 11명의 결선 진출자 가운데 당당히 지휘 부문 1등상인 네메 예르비상을 거머쥐게 된다. 이 경력은 그가 유럽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또 한번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

비슷한 시기에 윤한결은 작곡가로서도 동시에 두각을 나타냈다. 2015년과 2017년 제네바 작곡 콩쿠르에서 각각 2위, 3위로 결선 진출자로 모습을 보였는데, 청중상과 메뉴힌 상, 비알라스 콩쿠르 3위, 2016 파렐 작곡 콩쿠르 2위, 2018/2019 TONALI 작곡 콩쿠르에서 2위에 오르는 등 수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인정받게 된다. 2019년 산타 체칠리아 루치아노 베리오 국제 작곡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드레스덴, 함부르크, 제네바, 뮌헨, 토리노 시로부터 작품을 위촉받기도 하였다. 같은 해, 부다페스트의 페테르 외트뵈시 재단이 주최해 2년간 2명의 작곡가를 멘토링 프로그램에 선정된다. 작품을 창작하고 외트뵈시 지휘로 작품이 연주되는 특별한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인데, 당시 쓴 〈그랑드 히파(Grande Hipab)〉은 2021년 통영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앙상블 모데른의 연주로 초연이 되었을만큼 뚜렷한 행보를 보이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류의 문이 닫혔던 2021년, 윤한결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개최한 제1회 KNSO 국제지휘콩쿠르에서 2위 수상과 관객상을 받는다. 놀랍게도 이때 영상을 본 세계적인 매니지먼트사 아스코나스홀트(Askonas Holt)로부터 연락을 받고, 2022년 11월, 전속 계약을 맺게 된다. 사이먼 래틀, 정명훈, 다니엘 바렌보임 등 전설적인 지휘자들이 소속된 명문 매니지먼트사다. 2023년 1월부터는 사이먼 래틀이 이끄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콘서트 버전 바그너 〈지그프리트〉 투어에서 파트보 정리부터 래틀의 부지휘자 역할까지 맡게 된다.

2023년, 윤한결은 세계적인 권위의 '카리안 젊은 지휘자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카리스마가 있고, 준비가 철저했으며, 기술적으로 뛰어났다. 음악을 흥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게 한다는 점을 느끼게 해줬다"는 평을 받았다. 콩쿠르 우승 후 이듬해인 2024년 여름에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무대에 데뷔, 자신의 창작곡 〈그리움(Grium)〉 초연과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을 지휘했다.

국내에서도 매년, 수차례 초청무대를 갖고 있는데,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과의 무대는 물론, 통영국제음악제, 포항국제음악제, 교향악축제의 주요 공연 지휘자로 초청, 화려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지휘로 무대를 사로잡았다.



VIOLINIST
SARANG
SEOHYUN KIM

PROFILE

DAEWON
NEW YEAR'S CONCERT
2026

바이올리니스트 | 김서현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은 2023년 티보 바르가 국제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만 14세) 우승자로 선정되며, 국제 무대에서 떠오르는 신예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2021년 이자이 국제 음악 콩쿠르와 레오니드 코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22년 쿠퍼 국제 콩쿠르에서도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2008년생인 김서현은 2025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에서 압 판 초베덴의 지휘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며 뛰어난 기량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협연한 오케스트라는 에스토니아 국립교향악단(탈린), 헝가리 파논 필하모닉(부다페스트 뮤파), 리투아니아 체임버 오케스트라, 바스크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캔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오하이오), 그리고 국내외 여러 오케스트라(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금호영아티스트 콘서트, 성남시립교향악단, 전주시향, 목포시향, 대전 국제음악제 오케스트라, 대구오페라하우스) 등이 있다. 2026년에는 독일과 한국에서 WDR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브람스 이중 협주곡을 연주하며, 첼리스트 다니엘 뮐러-쇼트, 지휘자 안드리스 포가와 함께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김서현은 리사이틀과 실내악 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통영국제음악제, 스위스 그슈타트 메뉴힌 페스티벌, 시카고 데임 마이라 헤스 시리즈 등에서 리사이틀 데뷔를 가졌으며,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의 Chamber Music Connects the World 시리즈에서는 기돈 크레머, 미클로시 페레니, 로렌스 파워를 취리히 톤할레에서는 율리아 피셔와 함께 실내악 무대를 꾸몄다. 향후에는 가시모토 다이신, 알레시오 벅스, 클라라 주미 강 등과의 협연이 예정되어 있다.

그녀는 서울 센트럴 콘서바토리에서 이선이 교수에게 사사했으며, 지휘자 길버트 바르가의 멘토링을 받아 여러 무대에서 함께 연주한 경험이 있다. 2025년 10월부터는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미하엘라 마르틴을 사사할 예정이다. 김서현은 1753년 제작된 G.B. 과다니니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티보 바르가 가족의 후원으로 대여받은 악기이다. 또한 최근에는 Larsen Strings의 후원을 받는 Larsen Young Artist로 선정되었다.

PROFILE

연주 |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1956년 창단된 KBS교향악단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이 악단을 이끌어왔으며,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026년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은 제10대 음악감독 정명훈과 함께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국 교향악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무대에서의 도약을 이어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매년 100회 이상 공연을 펼치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과 만나고 있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초청 공연은 물론, '찾아가는 음악회'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클래식의 저변을 확장해 왔다. 방송교향악단으로서 KBS TV·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연주를 중계하며,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 사회공헌 활동으로 클래식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도 KBS교향악단의 활동은 두드러진다. 도이치 그라모폰 실황 음반 발매를 비롯해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 등 세계 주요 무대에 초청되며 K-클래식의 위상을 높였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관중 공연, '디지털 K-Hall',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은 시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으로 '클래식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며, 세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DAEWON CULTURAL FOUNDATION NEW YEAR'S CONCERT HISTORY



제1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2018.01.25(목) 저녁 8시 롯데콘서트홀

지휘 | 바실리 시나이츠키
피아노 | 백건우
연주 | 서울시립교향악단

프로그램
차이콥스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b단조 작품 23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 64



제2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2019.01.04(금) 저녁 8시 롯데콘서트홀

지휘 | 요엘 레비
피아노 | 조성진
연주 | KBS교향악단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 작품 30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6번 b단조 작품 74 '비창'



제3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2020.01.05(일)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정명훈
바이올린 | 클라라 주미 강
연주 | 서울시립교향악단

프로그램
브루흐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g단조 작품 26
브람스 | 교향곡 제1번 c단조 작품 68

제4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2023.01.07(토) 저녁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성시연
피아노 | 김선욱
연주 | KBS교향악단

프로그램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작품 15
슈베르트 | D.956 아다지오 (박해진 편곡)
라벨 | 볼레로 M.81



제5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2024.01.06(토) 저녁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성시연
피아노 | 손열음
연주 | 서울시립교향악단

프로그램
리스트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E^b장조, S.124
샤브리에 | 스페인 랩소디
에네스쿠 | 루마니아 랩소디 제1번, Op.11
리스트 | 헝가리 랩소디 제2번 c[#]단조, S.244/2



제6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2025.01.11(토) 저녁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요엘 레비
피아노 | 김대진
바이올린 | 임지영
첼로 | 김두민
연주 | KBS교향악단

프로그램
베토벤 | 삼중 협주곡 C장조, Op.56
시벨리우스 | 교향곡 2번 D장조, Op.43



대원음악상

DAEWON MUSIC AWARDS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6년 제정된 대원음악상은 국내외 클래식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한국인을 선정 및 포상하여 그 업적을 기려왔다. 대원문화재단은 기악, 성악, 지휘, 작곡 등 음악 활동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음악적 역량을 국내외 무대에 널리 알리고,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빛낸 음악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각 부문으로는 대원음악상 대상, 작곡상, 연주상, 신인상 등이 있다. 또한 재단 이사회와 심사위원단에서 특별히 시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상으로 공로상, 장려상, 특별공헌상 등을 시상한다.



제1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06.12.26)

- 대원음악상 대상 | 정명훈 (지휘)
- 대원음악상 작곡상 | 강석희
- 대원음악상 공로상 | 이강숙 (음악평론)



제2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07.12.26)

- 대원음악상 대상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 대원음악상 작곡상 | 진은숙
- 대원음악상 장려상 | 강승민 (첼로)
성민제 (더블베이스)
장유진 (바이올린)



제3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08.12.11)

- 대원음악상 대상 | 백건우 (피아노)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콰르텟21
- 대원음악상 작곡상 | 박인호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세종솔로이스츠



제4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09.12.04)

- 대원음악상 대상 | 강동석 ·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양성원 (첼로)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임헌정 (지휘)



제5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0.12.15)

- 대원음악상 대상 | 강효 · 대관령국제음악제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연광철 (베이스)
- 대원음악상 작곡상 | 백병동



제6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1.12.14)

- 대원음악상 대상 | 서울시립교향악단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서울모데트합창단
- 대원음악상 신인상 | 조성진 (피아노)
- 대원음악상 장려상 | 박종민 (베이스)



제7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3.1.21)

- 대원음악상 대상 | 조수미 (소프라노)
- 대원음악상 연주상 | 클라라 주미 강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장려상 | 전민재 (작곡)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김남윤 (바이올린)



제8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4.1.13)

- 대원음악상 대상 | 정경화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사무엘 윤 (베이스바리톤)
- 대원음악상 장려상 | 이수빈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故 이운형 (세아그룹 회장)



제9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5.1.12)

- 대원음악상 대상 | 연광철 (베이스)
- 대원음악상 연주상 | 김선욱 (피아노)
- 대원음악상 신인상 | 노부스 콰르텟



제10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6.3.7)

- 대원음악상 대상 | 김민 (지휘,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신인상 | 임지영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신수정 (피아노)



제11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7.3.6)

- 대원음악상 대상 | 김대진 (피아노, 교육, 지휘)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성시연 (지휘)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박영희 (작곡)



제12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9.4.16)

- 대원음악상 대상 | 조성진 (피아노)
- 대원음악상 신인상 | 양인모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이규도 (성악)



제13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24.5.20)

- 대원음악상 대상 | 손열음 (피아노)
- 대원음악상 연주상 | 김봄소리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신인상 | 임윤찬 (피아노)

대원문화재단

ABOUT DAEWON CULTURAL FOUNDATION

후원결연

● 대원문화재단은 음악인들이 안정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기량 향상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음악인을 후원하도록 주선하는 등 메세나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음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최초로 2015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케 이디켄(주)으로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티 보르 버르거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14세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이 (주)아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원문화재단은 피아니스트 김준희와 포니정 재단,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과 에이스테크놀로지,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주)케이디켄, 피아니스트 김종윤과 (주)올림푸스한국,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와 (주)경농, 첼리스트 이세인과 익명의 후원자, 베이스리스트 성민제와 (주)세라젬,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주)동성코퍼레이션(구 동성홀딩스), 소프라노 임선혜와 (주)트리코인베스트먼트, 지휘자 성시연과 (재)설원량문화재단,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재)설원량문화재단, 피아니스트 문지영과 대신증권,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과 시공테크,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아주산업 등 음악인들과 기업의 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대원문화재단

ABOUT DAEWON CULTURAL FOUNDATION

음악제 및 음악인(단체) 후원

- 대원문화재단은 클래식 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고자 정통 클래식 음악제와 공연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매해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를 후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매해 후원하고, 2023년부터 '통영국제음악제'를 후원하여 수준 높은 음악제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야음악회, 피아니스트 백건우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 베이스 연광철 리사이틀,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정년 기념 음악회 등 높은 음악성을 추구하고 지켜내고자 하는 우리 음악인들의 공연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클래식 음악의 청중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음악인들과 음악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음악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에는 예술교육 석좌기금을 조성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강숙 교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우수한 음악평론가 양성을 위한 노력에도 뜻을 함께 하여 2010년~2012년 객석예술평론상을 후원하는 등 한국 클래식 음악의 지속

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

- 대원문화재단은 음악전공자와 전문음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사)한국지휘자협회가 주최하는 '지휘캠프'를 3년 동안 후원하여 신진 지휘자들이 국내외 저명한 지휘자들로부터 집중 교육과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한국 피아니스트들을 위한 열린 광장인 '오픈 피아노 포럼'을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예술문화기금,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여 국내 음악대학의 시설 및 연구 환경 개선을 돕는 등 음악인을 위한 전문교육의 발전에 뜻을 더하였습니다.

또한, 대원문화재단은 국내 기업인들과 클래식 음악의 만남을 통한 문화 크리에이티브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뮤직 앤 컬처' 프로그램은 기업인들이 예술애호가 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인들이 메세나의 정신을 알고 예술후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원문화재단

ABOUT DAEWON CULTURAL FOUNDATION

기업음악회 기획자문 및 후원

● 대원문화재단은 기업과 음악의 보다 적극적인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주최하는 음악회 기획을 자문하여 우리 기업들이 음악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08년 5월에 개관한 포니정 홀의 개관 음악회는 공연장 설계부터 음악회 프로그램, 연주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예술컨설팅을 담당하였습니다.

2008년 7월에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5회 국제청합창단 정기연주회, 2008년, 2009년, 2013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개항 기념 콘서트, 2009년~2012년 인천국제공항공사 Sky Music Festival, 2009년 10월 SERI 8주년 기념음악회, 2010년 10월 세아제강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 2013년~2014년 신한TOP CEO 송년음악회 등 다양한 기업들이 주최하는 음악회에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신한음악상

장학사업

● 대원문화재단은 한국 음악인들이 예술적 기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전도유망한 젊은 음악인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설립 초기에 '대원예술인' 제도를 마련하여 피아니스트 김선욱, 피아니스트 김태형 등 선정된 음악인에게 최소 1년간의 장학금을 포함하여 국내외 음악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피아니스트 임동혁, 피아니스트 김준희, 작곡가 신동훈을 후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2019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15세의 최연소 나이로 1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후원하는 등 클래식 음악계의 유망한 젊은 음악인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태형



임윤찬

Daewon Artist Fellowships . since 2005

Daewon Music Awards . since 2006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기업의 사회공헌과 메세나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